

## 제20장

### 마지막 권면(22:6-21)

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은 22 장 5 절이다.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더욱 격려하기 위해 약속과 권면과 확증의 내용을 추가하여 그의 글을 마무리한다. 요한은 먼저 그가 기록한 계시록의 말씀은 매우 “신실하고 참되다”(6 절)는 말로 계시록은 거짓이 없는 참된 증거인 것을 확증한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1:2)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도 더하거나 제하지 않고 모두 기록하였음을 증거한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18-19 절)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참된 복음에 어떤 불순물을 첨가하여 거짓된 복음으로 변질시키려 애쓴다(갈 1:6-7).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계시록은 다 예수님께 받은 것이며, 받은 말씀에 그 어떠한 것도 더하거나 제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계시록은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기에,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음을 강조한다.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계시록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한 후에 곧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상기시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7,12 절)고 약속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2천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도 재림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은 다 거짓말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속히’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비롯된 것이다.

‘속히’는 다니엘 2:28 절에서 그 참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후일’에 될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후일’은 ‘속히’ 또는 ‘종말’과 동일한 말로서, 하나님은 종말에 도래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 요한의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후일’에 될 일의 하나는 이미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속히’는 시간적으로 ‘조만간 발생할’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하는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막 13:33)라고 권면하셨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왔으니 계시록을 인봉하지 말고 공개할 것과 늘 깨어있어야 할 것’을 권면한다(10 절). ‘늘 깨어있는 삶’이란 ‘의롭고 거룩한 삶’(11 절)을 의미한다. 즉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행하기를 권면하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산 자에게는 상을 베푸실 것이라는 예수님은 약속을 상기시킨다(12 절).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로써,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한다. 믿음에 합당한 삶이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약속하신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요한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 있는 자’(1:3)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은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한다.

요한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지를 보여 준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11 절)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15 절) 자들은 계속해서 불의하고 더럽게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늘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다.

끝으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면 믿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될 것이나,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을 상기시키며 교회를 상기시킨다 (14-15 절).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목적과 성도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는 날이기에 성도들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참된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성도들은 그 때가 곧 도래할 것을 분명히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